

시위 진압 육·해·공 동원...美 승인 정황



특조위 조사로 드러난 5월의 진실

③ 3軍 합동작전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진압작전이 육·해·공군 등 3군을 동원한 합동군사 작전이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군사 전문가들은 당시 3군을 동원한 실권자로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꼽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5·18 때 미국이 차기 대통령으로 전 보안사령관을 인정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특조위가 펴낸 조사결과보고서를 살펴보면 해병 제1사단 3연대 3연대 33대대(448명)는 80년 5월17일 광주 투입을 목적으로 마산 경남대학교에 대기했다.

공군, 광주 항공사진 제공 해병대원 진술·일지 확보 전문가들 실권자 전두환 지목 미국 승인 있어야 가능

5·18재단은 지난해 8월24일 이같은 내용이 적힌 군 문서를 공개했고 같은 날 해병대사령부는 “그런 명령을 받은 적 없다”고 반박자료를 냈다. 특조위는 당시 투입됐던 해병대원 진술을 확보, 해병대의 해명이 거짓임을 드러냈다. 실제 해병 제2훈련단에서는 1980년 5월26일~30일 예비역 동원훈련 응소자 중 호남 출신들을 선무(宣撫)요원으로 내세운 사실이 확인됐다.

해병 뿐 아니라 해군과 공군도 5·18 진압작전에 투입됐다.

2군 지부 계엄사령부의 ‘계엄상황일지’에는 1980년 5월22일 ‘소수의 폭도가 선박을 이용해 목포항을 도강한다는 정보에 따라 해군 309연대가 긴급출항, 항만에 경비 중’이라고 기재돼 있다. 기무사 추가자

료 16권 187쪽 ‘사태수습 시 고려사항’에는 ‘해군과 해경 합동 해상봉쇄작전으로 해상탈주를 방지하도록 지시하고 있다’고 명시돼 있다.

공군은 5·18 당시 광주지역 항공사진을 촬영해 계엄군에게 제공했다는 사실이 육군본부 ‘소요진압과 그 교훈’, 공군본부 ‘공분 참모회의록’, 육군본부 ‘일일역사보고’ 문서를 통해 드러났다. 특조위는 39전대 132대대를 방문 조사하는 과정에서 실제 1980년 5월27일 광주를 촬영한 사진 12매를 확보했다.

또 ‘5·18 광주소요사태 상황전파’ 등에 따르면 공군은 장갑차를 남해고속도로 차단 등 계엄사령부 경계임무에 지원했다. ‘전투지휘비 제6호’의 ‘작전임무 수행시 강조사항 하달’ 문건에는 ‘5전비(공군 제5전술공수비행단) 및 35전대는 광주기지에 입출항시에는 광주시내 상공을 통과하고 5000피트(1524m) 이상을 준수할 것. 1전비 항공기도 이를 준수할 것’이라고 기재돼 있다.

특조위는 “광주 상공을 통과하라는 특별지시는 항공기 운항을 통해 광주시민들에게 위력을 과시하라는 취지로 해석된

다”며 “5000피트 이상 비행유지는 시위대 충격이나 헬기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이 고도에서는 실제 전투기 소음으로 충분한 위력시위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군은 5월21일부터 29일까지 수송기와 헬기를 이용해 군 트럭 등 화물 192t, 의약품·전단지 18t, 인원 2612명을 서울·용산·김해 비행장 등지에서 광주로 수송했다.

특조위의 조사 결과로 계엄군의 5·18 진압작전에 해군(해병대), 공군까지 동원된 사실이 판명되자 지역 군사전문가들은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의 정권 장악을 미국이 사전에 용인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역 군사 전문가들은 “3군을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대통령으로, 이런 작전을 감행하려면 당시로서는 한국군의 작전권을 통제하던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전두환 전 대통령이 당시 실권자로 밝혀진 상황에서 3군이 동원됐다는 사실은 미국이 5·18 때 전두환 군부를 인정한 셈이다”고 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21 | 해질 18:12 | 달출몰 05:28 | 달지름 15:52

추위 풀려요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이 많겠다.

지역별 날씨 (°C)

광주	눈 내림	-4/7	보성	흐린 뒤 맑음	-6/5
목포	포슬린 뒤 맑음	-2/6	순천	흐린 뒤 맑음	-4/7
여수	흐린 뒤 맑음	-3/7	영광	흐린 뒤 맑음	-6/5
나주	눈 내림	-2/6	진도	흐린 뒤 맑음	-1/6
완도	흐린 뒤 맑음	-2/8	전주	눈 내림	-5/6
구례	눈 내림	-6/6	군산	눈 내림	-6/6
강진	흐린 뒤 맑음	-4/7	남원	눈 내림	-6/6
해남	흐린 뒤 맑음	-4/7	축산도	흐린 뒤 맑음	0/8
장성	눈 내림	-6/6			

◇ 바다 날씨

시해	남부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북서	서~북서	1.5~3.0	남서~서	1.0~2.0	
서~북서	서~북서	2.0~4.0	남서~서	1.5~2.5	
서~북서	서~북서	0.5~1.5	남서~서	0.5~1.5	
서~북서	서~북서	1.5~3.0	남서~서	1.0~2.0	
서~북서	서~북서	2.0~4.0	남서~서	1.0~2.5	

◇ 생활지수

눈 내림	높음
눈 내림	매우높음
감기	보통
미세먼지	

◇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5:57	00:16
	18:47	13:16
여수	01:36	08:22
	14:25	20:09

◇ 주간 날씨

14(수)	15(목)	16(금)	17(토)	18(일)	20(월)	21(화)
☀	☀	☀	☀	☀	☀	☀
-1/12	-1/8	-1/10	-3/8	-3/8	0/8	-2/6

국공립유치원 매년 500개 학급 확대 광주·전남 을 4곳 17개 학급 증설

5년간 2600개 학급 늘어 국공립 취원율 25→40%로

정부가 올해 국공립 유치원 학급 500개를 확대하는 등 5년간 2600개 학급을 늘리기로 했다. 광주·전남에는 올해 유치원 4곳이 새롭게 문을 열어 총 17개 학급이 증설된다.

12일 교육부와 광주·전남교육청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총 2600개 학급을 신설해 국공립유치원 비율 4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유치원에 다닐 수 있는 만 3~5세 아동 가운데 지난해 4월 기준으로 국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는 24.8%(17만3000명)다. 학급 수로는 1만484개다.

2022년까지 최소 2600개 학급을 더 만들면 22만5000명이 국공립 유치원에 다닐 수 있어 취원율이 40%로 높아질 것이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단설유치원 31개, 병설유치원 55개 신설하고 기존 유치원 학급 증설에도 나서 총 497개 학급을 새롭게 확보한다.

광주의 경우 올해 지안유치원(동구 내남동)이 9학급(일반 8, 특수1·모집 중) 규

모로, 두암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1학급 규모로 문을 연다.

기존 문화초, 각화초, 월산초, 송정서초 병설유치원은 1개 학급씩 증설된다. 효천다솜유치원은 기존 1개 학급(특수반)으로 운영되던 것이 1학급 추가된다.

전남은 올해 순천지역에만 유치원 2개가 문을 연다. 기존 순천북초 병설유치원과 삼산초 병설유치원이 통합해 순천북유치원(단설)으로 개원하고 신대초에는 병설유치원이 들어선다. 규모는 각각 1개 학급이다.

유치원 수요가 높은 광주전남혁신도시에는 내년 9개 학급 규모의 유치원이 신설될 예정이다.

신규 택지개발이 많은 경기(162개)지역에 가장 많은 학급이 늘어나고, 서울(65개)·세종(53개)·대구(33개)·충남(32개)·경북(31개) 지역에도 국공립 유치원 학급이 30개 이상 늘어난다.

정부는 매년 500개 학급을 증설한다고 밝혔으나 지역별 신설 규모는 금년도로 제외하고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유치원 신설 또는 학급 증설을 위한 예산마련, 교원 확보, 지역별 국공립유치원 비율 등을 고려하면서 점진적으로 세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오색딱따구리의 식사시간 12일 장성군 서삼면 축령산 편백숲에서 큰오색딱따구리 암컷 한 마리가 부리로 나무를 뚫어 먹이를 찾고 있다. 오색딱따구리는 초당 18~22번씩 부리로 나무를 쪼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교육청 을 공무원 82명 선발

3월 26~30일 접수 당 학과 학교장 추천자만 응시할 수 있다.

광주시교육청이 2018년도 지방공무원 82명을 선발한다. 광주시교육청은 12일 누리집에 '2018년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응시원서 접수는 오는 3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이다.

필기시험은 5월 19일 실시한다. 지방공무원 온라인채용시스템(homeedu.gen.go.kr)을 통해 원서를 접수한다. 경력경쟁임용시험(시설·건축 9급)은 해

직렬별 채용 인원은 교육행정 9급 75명(일반 70명, 장애인 3명, 저소득층 2명)·공업(일반기계) 9급 1명·공업(일반전기) 9급 2명·시설(건축) 9급 2명·시설(일반토목) 9급 1명·경력경쟁 시설(건축) 9급 1명 등 모두 82명이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교육청 누리집 공무원 온라인채용시스템(homeedu.gen.go.kr)을 통해 원서를 접수한다. 경력경쟁임용시험(시설·건축 9급)은 해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광주 옛 근로청소년복지관에 노동복지관

시, 2023년 준공 계획 다문화지원센터로 사용중인 교육관을 제외하곤 현재 비어 있는 상태.

외국인 노동자 보호와 광주 노동자들의 복지업무 맡을 노동복지관이 건립된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노동복지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마련 등을 위한 용역을 지난해 11월 착수, 오는 4월까지 마치고 했다.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구체적인 사업 규모와 예산 등을 확정하는 뒤 오는 2023년까지 건립한다.

광주 북구 옛 근로청소년복지관은 1983년 교육관이 처음 들어선 뒤 기숙사(1987년)와 본관(1992년)이 건립됐으나

광주시는 부지 9200㎡에 달하는 이곳에 노동복지관이 자리 잡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용역에서는 우선 노동복지관을 신축할지, 리모델링 할지를 결정한다. 노동복지관에 들어설 시설물 배치, 규모, 소요 예산 등 기본계획은 물론 관리 운영계획과 활성화 방안, 노동복지 실태와 분석 등도 한다.

광주시는 이 복지관이 노동자의 복지 증진과 권리보호, 지속 가능한 노동정책 실현 등 노동복지의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호남지역 대표주자 YHB집진기 산업현장/요식업분야 환경을 확보드립니다

Y31Y AS24 YHB 31년의 역사와 기술이 요식업소, 산업현장 미세먼지/오일미스트/연기를 완벽히 제거합니다

미스트 크리너

하나의 바디, 네가지 기능
미스트크리너를 새롭게 개발하다

머시닝센터, CNC 선반, 밀링가공
방전가공 외 미스트 발생 공작 기계

요식업소용 전기집진기

직화구이 연기, 미스트, 미세먼지 **민원해결사**

직화구이점 미세먼지 배출주의보 발령
대기오염 규제 대응 해결책

6-사이클론콜렉터

더스트크리너의 새로운 창의, 새로운 발명
사이클론을 한 몸에 품다

그라인더작업, 금속절단가공, 드릴작업, 아크릴가공
절삭작업, 파쇄, 석재가공 등 분진 발생하는 작업

본사 및 영업본부: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동테크노터우 12차 501호 Tel. 02-2029-6400 Fax. 02-2029-6404
광주 공장: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5번로 45(장덕동) Tel. 062-953-2995
익산 공장: 전북 익산시 석암로1길 4(용재동) Tel. 063-835-4771

www.yhbeco.com / www.yhb.co.kr
E-mail: eco6400@hanmail.net

